

【서평】

이삼성, 『세계와 미국』  
(서울: 한길사, 2001)

전재성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미국의 외교정책에 관한 중요한 저작들을 저술해 온 증견 정치학자 이삼성 교수의 『세계와 미국』은 탈냉전기 미국 패권의 성격과 미국의외교정책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매우 상세하고 유익한 또 하나의 저작이다. 냉전이 종식된 이래, 2001년 9.11테러가 발생하기 전까지 소위 “10년간의 평화(1991~2001)”를 통하여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혹은 패권적 지위를 공고화하였다. 그리고 그 패권은 역사상 유례가 없이 강력한 것이었으며,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의 새로운 흐름 속에 형성된 것이었다. 근대 국제정치체제 속에서 과거의 패권들이 대략 100년을 주기로 등락을 반복했던 것과는 달리 미국의 패권은 보다 공고한 기반을 가지고, 더욱 강력한 형태로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을 낳게 한 기간이 바로 탈냉전기 10년간의 기간이었다.

본서는 탈냉전기 공고화된 미국 패권의 성격을 이론적, 역사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는 미국 외교정책의 전반적 성격을 시어도어 로워와 벤저민 긴스버그의 저작을 인용하여 논의하고 있다. 저자는 미국 외교가 세력균형의 역할, 경제 팽창주의, 나폴레옹의 역할, 신성동맹의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이는 미국이 세계를 이념적, 현실적으로 주도하는 국가로서 연성권력에서의 지도력을 행사하면서도, 각 지역의 국제정치에서 세력균형자로 행동하며 미국의 국익을 증진시키고 경제적 팽창을 통하여 경제적 패권을 공고히 하는 미국 외교의 다양한 성격을 포착해내고 있는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탈냉전기의 복잡한 상황을 보건대, 세계를 이끄는 미국의 외교 정책을 단순히 안보외교와 경제외교의 분야에서만 조망해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책 전체의 구조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 책의 구성에서 보여지듯이, 탈냉전기 미국의 패권은 10가지의 주제, 즉, 미국의 전 지구적 역할, 20세기 미국의 역할, 미국의 세계인식, 21세기 미국전략의 기초, 핵, 인권, 인도적 개입, 유엔, 생태/환경, 문명론 등을 통해서 보다 다채롭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권, 인도적 개입, 유엔과 같은 초국가 국제기구, 환경, 문명론과 같은 주제의 연구는 새로운 시대의 미패권의 특성과 전개과정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새로운 주제이다. 본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미패권의 성격과, 이러한 패권이 냉전기 미국의 외교정책과 가지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냉전기부터의 상세한 역사적 분석을 통해서 밝혀내고 있다.

본서는 2001년 9.11테러가 발생하기 이전에 저술된 것이다. 한편으로는 테러 이후 미국의 외교가 반테러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을 목표로 급격하게 변환된 상황을 본서가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테러가 발생하는 배경이 되는 탈냉전기 10년의 역사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본서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테러가 테러리스트들의 단기간의 결심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테러를 발생시킨 세계적, 지역적 구조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때, 탈냉전기에 전개된 국제정치적 상황, 특히 미국 패권이 주도하는 세계질서는 패권발생의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서는 미국 패권의 성격을 인권, 환경, 그리고 문명의 관점에서 다룸으로써 테러의 배경이 되는 구조적 상황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는 테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탈냉전기에 형성된 미국의 패권의 성격은 21세기에 일정한 변화를 거치면서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속적인 미패권에 대한 비판적 안목과 한국의 대처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저자는 미국 패권의 성격에 대해 전반적으로 비판적 안목을 유지하고 있다.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출현한 세계화, 민주화, 정보화의 추세는 국제정치,

혹은 지구정치의 모습을 변화시켰다. 국가 간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상호의존의 정도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국가들 내부의 민주화 추세는 국제정치의 운용에 대해서도 민주적 과정을 강조하였고, 정보화는 각 국가들의 지도자는 물론 일반 대중들까지 국제정치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데 대단히 유리한 환경을 제시해 주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등장한 미국의 패권은 과거의 패권들과는 달리 새로운 세계운용의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현재 미국은 자국의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인권, 민주주의, 시장, 다자주의 등의 이념을 기초로 세계를 운용하고자 하고 있지만, 사실상 자유주의적 패권이 세계적, 보편주의적 민주주의를 항상 동반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세계 시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강조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방법에서 반드시 민주적 절차를 따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탈냉전기 보스니아, 소말리아, 르완다, 코소보 등 다양한 인권적 개입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미국의 인도주의적 개입외교는 많은 비판을 가져왔다. 인권과 자유를 목표로 하지만 그 수단은 일방주의적 모습을 띠었다는 비판이다. 자유주의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주의적 패권의 실현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와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미국의 패권의 성격을 분석하면서, 미국이 “기계적 메커니즘에서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그 메커니즘이 생산하고 유지시키는 가치체계는 특히 대외적인 관계에서 지극히 반민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110쪽). 이는 21세기 미국이 자유주의를 앞세운 패권적 외교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세계적 차원의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문제를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점을 적절히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미국의 행동의 정당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넘어서서 세계질서 자체의 근본적인 한계와 그에 대한 비판적 질서가 무엇인가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함으로써 미국 외교정책 비판에 머무르는 시각을 넘어서고자 하고 있다(591쪽). 현재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진행 중인 미국제국론과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 그

리고 범세계주의적 민주주의론 등도 모두 자유주의적이면서 민주주의적인 세계 운용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고민하는 학자들의 노력의 소산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적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저자는 미국의 패권론이 자유주의 담론과 문명론 등의 모습을 띠고는 있지만 사실상 “미국의 지배를 위한 현실주의적 지정학적 전략론”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특히 미국의 패권은 제3세계 민중의 고통을 외면하고, 빈국들의 민중 평화적 질서와 희망에 비관적으로 작용한다고 논의하면서 미국의 패권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사실 테러가 발생하는 것도 세계적 차원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때, 지구정치에서 패권의 역할이 세계적 최빈층의 상황과 연계되어 분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잘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한미관계에 대한 논의 역시 주목할 만 하다. 저자는 미국의 외교정책이 국제주의와 고립주의,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두 축을 기점으로 전개된다는 기존의 견해를 유지, 발전시키면서, 탈냉전기 부시 행정부의 현실주의적 국제주의, 클린턴 행정부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그리고 새로운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가 교차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외교정책의 성격 변화는 한국의 외교정책과 한반도의 운명에 막대한 영향을 발휘한다. 김대중 행정부가 추진했던 대북 포용정책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행정부가 바뀐 미국의 상황과 맞물려 요동쳤던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 보건대, 미국 외교정책의 성격변화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저자는 이러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외교정책이 한국의 국가전략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구조결정론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즉, “미국의 대외정책에 미국의 주요이익집단들이 저마다 관련된 정책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듯이,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남한도 미국의 정책결정에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진 이익집단의 위치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라고 보면서, 저자는 “한국의 정치리더십이 어떤 비전과 외교역량으로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논의하고 있다(311쪽). 그리고 이러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대미관계의 평등성에 대한 가치관을 중심으로 국민적 통합을 통하여 “두개의 날을 가진 외교(double edged diplomacy)”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312쪽).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을 설계함에 있어, 미국 외교정책에 대한 올바른 분석은 필수적이다. 사회과학, 특히 국제정치학이 가치내재적이라고 할 때, 미국 외교정책에 대한 분석도 다양한 견해와 가치관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학자가 우리의 가치관에 기초한 분석을 시도하고 발전시킨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본서가 학문적으로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도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이라 하겠다.